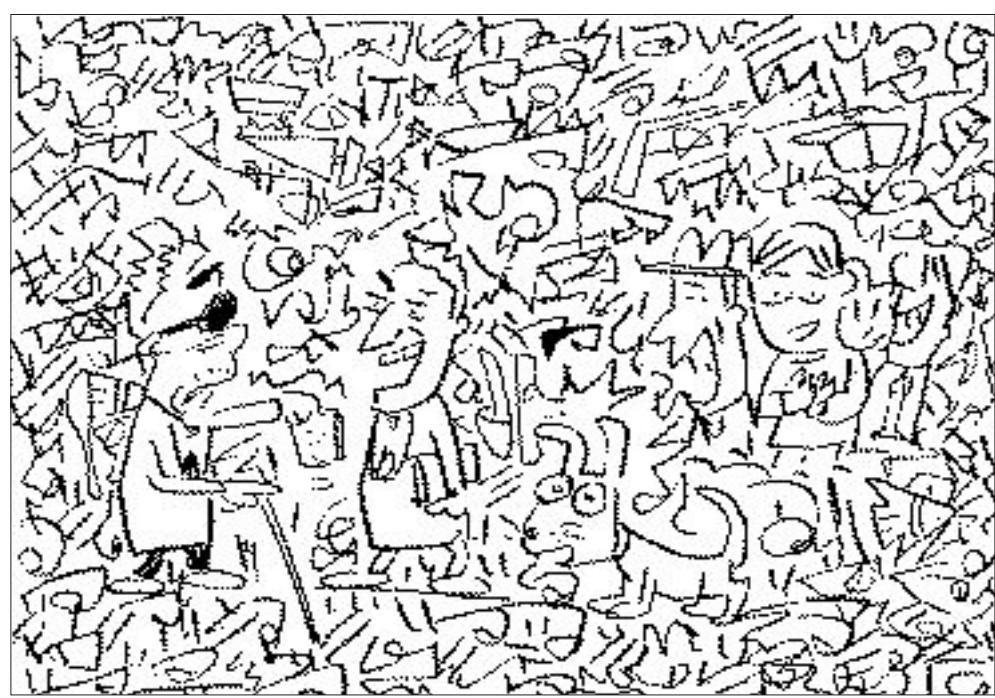

 숨은그림찾기 <100>


(찾아보세요) 셔틀콕, 스포, 프라이팬, 디리미, 열대어, 빛단배, 슬리퍼, 뜻, 운동모자

맹인의 차지

한 맹인이 지팡이를 짚으며 조심스럽게 길을 가고 있었다. 그런데 웬 개 한 마리가 겁도 없이 다리 한 쪽을 물더니 그 맹인의 바지에 오줌을 싸고 말았다. 하지만 맹인은 화를 내지 않고 저멀리 달아난 개를 향해 과자를 끼어더니 주려고 했다. 그때 마침 종교인이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보고 말했다.

“원뿔을 맞거든 오른뺨도 마저 내밀라는 성경 말씀을 실천하는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 같으면 머리를 한 대 쥐어 박았을텐데 과자는 주다니요”

그러자 맹인이 말했다. “흠, 과자를 줘야 그놈의 대가리가 어디 있는지 알게 아니오?”



지난주 정답

사람 옆 얼굴, 음표, 괜족, 고추, 열대어, 디리미, 은행잎, 비늘, 셔틀콕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을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보내실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당첨자: 윤수선(광주시 북구 두암동) 이하정(나주시 송월동)

아하! 오늘의 바로 그날

국산 고유 모델 현대차 '포니' 첫 생산

오늘날 '세계 5위 자동차 생산국'으로서 성장하는 디딤돌이 됐던 것이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포니'이다.

국산 첫 고유 모델 자동차 포니는 지난 1975년 12월 1일 울산공장에서 생산에 들어갔다. 포니의 세계 무대 데뷔는 이보다 앞선 1974년 10월 이탈리아 토리노 국제자동차 박람회에서다. 우리나라 최초의 고유 모델 승용차가 세계 무대에 첫선을 보인 것으로, 세계에서 16번째,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2번째였다.

뒷모양이 날렵한 페스트 백 스타일을 타고난 포니 디자인은 이탈리아의 디자이너 '조르지오 주지아로'가 맡았고 엔진은 미쓰비시의 4기통에 배기량은 1238cc.

75년 12월 시작된 포니의 생산은 지난 1903년 고종 황제가 캐딜락 4기통 한 대를 도입, 국내에 자동차가 최초로 선보인 이후 조립차 생산 수준에 그치던 국내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큰 사건이었다.

국산 자동차의 경우 1955년 '시발' 자동차, 1962년 '새내리' 택시 등이 제작됐지만 미국 자

프차를 개조하거나 일본 닛산의 블루버드 승용차의 부품을 수입해 조립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포니의 생산은 외국 모델을 들여와 그대로 조립하는 단계에서 한국 고유 모델의 승용차를 생산하는 단계로의 전환을 의미했다.

포니 생산이 출발부터 순조로운 것은 아니었다. 73년 고유 모델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회의적 시각이 많았다. 고 정세영 현대차 사장은 회



현대자동차가 1975년 생산에 들어간 국내 고유 모델 승용차 포니.

고록에서 "우리 스스로 개발한 순수 국산차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 보자며 얘기를 꺼냈다가 간부들을 포함해 회사 전체가 반대하고 나섰다"고 쓰기도 했다.

하지만 전략을 세우고 이탈리아, 일본, 영국 등으로 밭풀을 팔면서 기술을 습득하고 연구를 거듭하면서 현대는 '포니'라는 고유 모델을 개발, 생산하게 됐다. 포니라는 이름은 지난 1974년 공모를 거쳐 확정됐다.

포니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이었다. 76년 2월 29일 '포니 1호'가 시판된 뒤 출시 첫 해 국내 시장을 지배하던 기아자동차의 브리사를 제치고 시장 점유율을 절반 이상 차지하며 소형 승용차 시장을 석권했다. 자동차 수요가 급팽창하면서 '포니'를 사려는 사람들이 몰렸고 영업 소장들이 이 공장에서 생활장을 벌일 정도였다.

또 애파드르에 국산 승용차로는 첫 수출되면서 국내 자동차 산업의 해외 수출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고 10년 뒤인 1986년에는 자동차 대국 미국에도 수출하게 됐다.

현대는 포니에 이어 포니 2, 포니 액슬을 내놓았고 포니 액슬은 미국 시장에서 수입차종 중 베스트셀러카에 오르기도 했다.

/김자기자 dok2000@kwangju.co.kr